

설명자료

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배포일시 | 2021. 5. 27.(목) 16:30 (총 4매) | | 보도시점 | 즉 시 | |
| 담당부서 | 청주 기상지청 관측예보과 | 담당자 | 과장 전문관 | 신언성 김순 | 전화번호 043-272-0365 |

28일(금) 천둥·번개와 강한 비, 돌풍, 우박 유의

- 시간당 20~30mm의 강한 비와 천둥·번개
- 최대 2cm 내외의 우박 가능성
- 시속 70km 이상의 돌풍 가능성 높아
 - 비닐하우스, 전신주 등 시설물과 과수 등 농작물 피해 주의



[5월 28일(금) 오후 기상상황 모식도]

- 청주기상지청(지청장 이경희)은 **28일(금) 충북 전 지역에 비가 내리고, 시간당 20~30mm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·번개와 우박, 그리고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,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상세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.**

[기압계 전망]

- 청주기상지청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저기압이 **28일 오전 서해상, 낮에 중부지방을 지나서 저녁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였다.**
 - 최근 한반도 상공으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부근에 저기압과 비구름을 발달시켜 잦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하며,
 - 28일에도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영하 20℃ 내외의 찬 공기를 가진 소용돌이가 남하하면서 저기압이 발달하고, 이 저기압이 남서쪽으로부터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따뜻한 공기를 유입시키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
[강수 전망]

-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우리나라로 남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**28일 아침(07시) 충북북서쪽(진천)부터 비가 시작되어 오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오후(15시)에 대부분 그치겠다. 충북 중·북부는 29일 새벽(03시)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.**

- (강수집중시간) 충청북도는 09~12시에 가장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밤에 다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충북중·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, 이 비는 29일(토) 새벽(03시)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.

< 예상 강수량 (28일 아침(07시)부터 29일 새벽(03시)까지 >

- 충청북도: 20~60mm

- (천둥번개·강한비)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영하 20℃ 내외의 찬공기가 유입되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천둥·번개와 함께 우박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~30mm의 강한 비가 짧게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,
- (우박) 특히 28일 오후(12~18시) 충북 일부지역(괴산, 단양, 충주, 제천)에는 최대 2cm 내외의 우박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, 그 밖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1cm 내외의 우박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
 - 비닐하우스와, 전신주 등 시설물과 외부에 주차되어있는 차량, 그리고 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.

[강풍 전망]

- 28일 오전에는 충청북도에는 시속 30~60km(초속 8~16m)의 바람과 함께, 순간적으로 시속 70km(초속 20m)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며, 최신의 기상정보를 적극 참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강한 바람에 의해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, 건설현장,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파손과 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과 시설물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.